



엘레베이터만 타면 백화점 도착 전 가구 광고호수공원 뷰는 '덤'

경기 수원시 영통구 '포레나 광고' 모습

아파트의 미학(美學)

포레나 광고

최근 찾아간 경기 수원시 영통구 '포레나 광고'. 지난 2020년 10월 입주를 시작한 아파트는 지하철 신분당선 광고중앙역 4번 출구에서 걸어서 약 10분 정도 걸렸다. 역세권인 단지를 향해 가는 동안 주변에는 경기신용보증재단 사옥과 경기주택도시공사 융복합센터, 한국은행 경기본부 행사 등이 지어지고 있었다.

특히, '경기도청', '롯데 아울렛', '갤러리아 광고점' 등 행정기관과 생활 편의시설이 위치해 있어 흔히 말하는 '슬세권(슬리피와 역세권을 합친 말)'이 가능해 보였다.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광고호수공원로 300 일대에 들어선 '포레나 광고'는 지하 5층~지상 최고 47층, 3개동, 전용면적 84~175㎡ 오피스텔 총 759실 규모로 조성됐다. 가구 타입은 전용 면적 ▲84A㎡ 250가구 ▲84B㎡ 212가구 ▲84C㎡ 210가구 ▲84D㎡ 42가구 ▲84E㎡ 42가구 ▲175㎡(펜트하우스) 3가구로 구성됐다.

㈜한화 건설부문이 시공한 아파트는 갤러리아 백화점 등 상업시설과 연결돼 있는 주상복합 단지였다. 단지 지하 내 판매시설 일부가 갤러리아 백화점 매장으로 운영돼 엘리베이터를 타고 지하로 내려가면 바로 백화점에 있는 셈이라 입주자들은 단지 내 상가처럼 이용하는 것이 가능했다.

단지 외관은 깨끗한 분위기를 연출했고 최고 47층은 멋스러운 느낌을 받게 했다. 단지는 입주자들이 공간을 활용할 수 있게 디럭스 욕실과 보조 주방, 수납펜트리(식료품 창고), 다용도 창고장,

마스터룸 불박이장, 파우더 가구 일체형 수납, 침실 가변형 벽체 등을 갖춰 실용성을 높였다. 천정고를 일반 아파트 평균보다 10~20cm정도 가량 높은 2.5m로 설계해 개방감도 더했다.

㈜한화 건설부문 관계자는 "단지의 가장 큰 매력은 전 가구에서 광고호수공원 조망이 가능하다는 점"이라면서 "입주자들은 집 안에서 광고호수공원의 아름다운 사계절을 즐길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호수 주변에 조성된 각종 체육·휴게시설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단지 1층 중앙에는 다양한 문화 이벤트와 행사가 가능한 대규모 잔디광장이 조성돼 있었다. 단지 내(2층)에는 깔끔한 느낌의 조경과 휴식공간이 마련돼 있었다. 각 동별 앞에 위치한 개인정원(private garden)에는 산책로가 조성돼 자연 속에 있다는 느낌을 받았다. 102동 옆

에 조성된 커뮤니티 공간(Community garden)에서는 호수 조망과 휴식이 가능해 입주민에게 지상층과는 차별화된 쾌적한 생활공간을 제공해 주고 있었다.

단지에는 입주민의 편의와 문화, 건강을 위해 골프연습장, GX룸, 피트니스, 라운지, 탈의실, 샤워실, 주민회의실 등 각종 커뮤니티 시설도 조성돼 있었다. 단지 주변에는 다양한 문화·전시 행사를 즐길 수 있는 '수원컨벤션센터'가 위치해 있었다. 신풍·산의·광고호수초등학교, 다산중학교, 광고고등학교 등도 인근에 위치해 있어 좋은 여건을 제공해 주고 있었다.

/김대환 기자 kdh@metroseoul.co.kr

**신분당선 광고중앙역 걸어서 약 10분 소요
주변 경기신용보증재단·주택도시공사 사옥
롯데 아울렛, 갤러리아 등 생활 편의시설
상업시설과 연결되어 있는 주상복합 단지
최고 47층… 천정고 2.5m 설계로 개방감**



단지 내에서 바라본 호수공원 조망 모습



갤러리아 백화점 등 상업시설과 연결된 에스컬레이터 모습



단지 내 조성된 산책로 모습

/김대환 기자

바스티비 TV와 함께하는 메트로 뉴스



▲'살인사건 데이트폭력 지칭' 이재명
손배소, 내년 1월 선고 /사진 뉴시스
▲檢, 추가조작으로 46억 부당득 '슈퍼
개미' 구속 기소

▲서정진 셉트리온 명예회장, 증여세
132억 반환소송 패소
▲法, '방역수칙 위반 집회' 윤택근 민주
노총 부위원장 징유



▲수도권·충청 '초미세먼지 주의보'...
오늘까지 공기 나빠 /사진 뉴시스
▲이태원 외국인 사망자 23명 운구·안
치...18명 지원금 지급